논어 7편 술이 9장 · 원문·풀이

子食於有喪者之側，未嘗飽也。子於是日哭，則不歌。

독음 · 자식어유상자지측 미상포야 자어시일곡 즉불가

쉬운 풀이(요약) · 상중인 사람 곁에서는 배불리 먹지 않았고, 곡한 날에는 노래하지 않았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食 밥 식 식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有 있을 유

喪 죽을 상 상 / 者 놈 자 / 之 갈 지 / 側 곁 측 측

未 아닐 미 미 / 嘗 맛볼 상 상 / 飽 배부를 포 포 / 也 어조사 야

是 이 시 시 / 日 날 일 일 / 哭 울 곡 곡 / 則 곧 즉

不 아닐 불 / 歌 노래 가 가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